

# 붙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주부의 태도 및 선호연구

## A Study of Attitudes and Preferences of Korean Women Toward Built-in Closets and Storage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시간강사 : 김 대 년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Instructor : Dae Nyun Kim*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가정대학  
주거학 및 실내디자인학과  
교 수 : 리디아 손디  
*Field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Dept. of Home Economics*  
*California State Univ. Long Beach*  
*Prof. : Lydia Sondhi*

### 목 차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용어의 정리

####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주택의 수납공간과 문제점
2. 주택의 수납공간 기준
3. 뉴욕의 아파트와 서울의 아파트의 수납공간 비교·분석

#### III. 연구방법

1. 측정 도구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분석

####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2. 붙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태도 및 선호
3. 분화된 붙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선호 및 의식
4. 붙박이 수납공간을 갖춘 아파트에 대한 수용태도 분석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Apartment houses are rapidly being assimilated into the Korean lifestyle. Little study of space utilization and specifically built-in storage needs has been implemented into design of these apartment uni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 to ascertain attitudes of a select group of Korean housewives(N=250) living in apartments in Seoul toward closets and built-in storage units, and second, to determine the acceptability of proposed alternative plans which include built-in storage facilities by Korean women(N=31) living in the United States. Overall results reflect that built-in closets and storage are highly prized and

additional units required in Korean apartment plans. Of the respondents, about 86% thought portable storage bought at marriage would be phased out if more storage was built into Korean apartments. Most Korean housewives would perceive the advantages of built-in storage units, and would prefer differentiated built-in storage units to undifferentiated ones. Yet attitudes were equally split on the aesthetic value of the elimination of the portable storage.

Five Korean apartment plans were drawn to scale then altered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additional built-in storage. These altered plans all received greater than 83% preferences to the existing Korean apartment plans. Additional study needs to be undertaken to address the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storage in existing units as well as impact the current space planning concepts related to more built-in storage.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the concerns related to aesthetic value of portable units as part of the study process.

## I. 서 론

주택공급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파트의 역할은 지대하다.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과 토지이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서구의 새로운 주거형태인 아파트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57년으로,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198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거단위의 26%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그 보급율이 증가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통계연감 1985). 수평적 형태의 전통적인 한식주택에서 생활해 왔던 한국인에게 수직적 주거형태인 아파트가 얼마나 생소한 주거단위였던가를 고려한다면, 아파트의 건축적인 측면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주거단위로서의 급속한 사회적 수용은 놀랄만한 일이다.

제한된 토지에 보다 많은 주거단위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건축비가 절약되는 등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아파트는(한국주택공사 1979) 숫적인 팽창이 계속되고 있음에 비하여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문제점 중에서, 불박이 수납공간의 실제적인 분석과 아울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불박이 수납시설에

대한 선호 및 태도를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기초로한 바람직한 수납공간을 갖춘 아파트의 평면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그 수용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잡다한 물건을 수납하는 장소로서 이동식 수납가구와 불박이 수납공간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이에 앞서 선행연구로서 미국의 불박이 수납공간의 시설 기준을 알아보고 두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과 서울을 표본으로 하여 두 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공간을 비교하였으며, 한국의 아파트에 적합한 불박이 수납공간의 용적에 대한 고찰 및 제안을 하였다.

불박이 수납공간과 이동식 수납장에 대한 선호도는 다음 질문에 대한 동의정도(level of agreement)로서 평가되었다.

아파트에 불박이 옷장과 불박이 수납장이 잘 설치되어 일반화되면, ㉑ 이동식 수납가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절약될 것이다. ㉒ 주거이동시 가구운반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이 감소될 것이다. ㉓ 이동식 수납가구에 비해 공간활용도가 크므로 아파트의 정리정돈이 용이해질 것이다. ㉔ 아파트 실내공간의 미적인 요소가 감소될 것이다.

또한 아파트에 불박이 옷장과 기타 불박이 수납장이 잘 계획되어있는 경우에도, 결혼할 때 이동식 옷장과 기타 가구를 구입하는 우리나라 신부들의 일반적인 관례가 계속될지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점의 하나인, 용도에 따라 분화된 미국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우리나라 주부들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우리나라 주부들의 불박이 옷장 및 기타 불박이 수납장에 대한 선호를 기초로 하여, 서울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평면을 개조하여 계획함으로써 불박이 수납공간 도입의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쾌적한 주거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불박이 수납공간의 설치를 고려한 평면계획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됨으로써, 제한된 아파트의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동식 옷장 등의 구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비와 주거이동시마다 가구운반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며, 보다 정돈되고 아름다운 실내환경 조성이 도움을 주기 바란다.

## 2. 용어의 정의

- 불박이 옷장 : 건축시에 침실의 벽 일부 또는 벽 전체에 부착시켜 만든 것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내부에는 옷걸이막대, 선반 등을 갖추어 옷을 걸어두거나 침구류 등을 정돈해 두는 장.

- 불박이 수납장 : 불박이 옷장과 같은 형태이나 침실이외의 공간, 즉 출입구 근처, 부엌, 거실, 복도, 화장실 등에 위치하며 장소와 용도에 맞게 각종 물품을 수납하는 장.

- Axonometric Method : 건물 내부의 천장을 제거한 후 위에서 내려다 보고 같은 축적으로 실내를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주거 내부공간의 이해를 도와주는 제도 방법.

- 중상류층 아파트 : 이인희(1974)의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117.1m<sup>2</sup>이상인 아파트를 지칭함.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주택의 수납공간과 문제점

김일진(1971)은 우리나라 중류가정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침구와 의복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용적은 5.36m<sup>3</sup>이며, 6~10세는 0.56m<sup>3</sup>가 필요하지만, 11~15세(남자)는 1.02m<sup>3</sup>, 16~20세(남자) 1.32m<sup>3</sup>, 21~25세(남자) 2.02m<sup>3</sup>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최소한의 수납공간 용적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수납공간에 대한 연구를 한 이인희(1975)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2.1~7.0m<sup>3</sup>,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1인당 2.1~6.4m<sup>3</sup>가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수납공간의 용적은 거주자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체 주거용적의 8.8~13.4%가 수납에 소요되는 용적이었으며 그 중 의류계통의 수납을 위해서 33.1~50.1%가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희는 우리나라 중간 소득계층의 적합한 수납공간으로, 단독주택에서 1인당 1.51m<sup>3</sup>가 의류수납에, 0.96m<sup>3</sup>가 침구류수납에 필요하며, 수납장소로 분류하는 경우, 주거단위당 1.50~3.20m<sup>3</sup>가 거실에, 1.71m<sup>3</sup>가 식당과 부엌에 필요하며, 기타 여러가지 물품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5.73m<sup>3</sup>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또한 5~6인 가족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인 수납공간의 용적은 24.0m<sup>3</sup>가 필요하며, 이는 주거용적 200m<sup>2</sup>의 12.0%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24.0m<sup>3</sup>는 의복과 침구 수납공간, 부엌의 식기류 및 식품보관을 위한 공간, 책 등의 수납공간, 기타 일반적인 수납공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인희의 연구에서는 아파트 면적을 기준으로 117.1m<sup>2</sup>가 넘으면 중상류층 아파트라고 분류하였다. 안영배(1979)의 우리나라 아파트의 천장높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평균 2.3m로 나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117.1m<sup>2</sup>인 아파트의 용적을 계산하면 269.33m<sup>3</sup>가 된다. 이인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총용적의 12%의 수납공간은

32.33m<sup>3</sup>가 나오게 된다.

1976년 건설부 주택국에서 실시한 조사연구에서는 의복과 침구수납을 위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당 9.20m<sup>3</sup>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의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불박이 수납시설의 부족을 들고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은 작은 방 하나를 비계절용품, 청소도구, 책, 가전기기등의 수납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엌 뒤의 다용도실을 잡다한 물품의 수납에 이용함으로써 공간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돈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곽인숙(1983)의 연구에 의하면, 아파트 거주자의 반 이상이 2개의 옷장을 지니고 있고, 옷장의 30% 이상은 폭이 2.3m정도이었다. 또한 한 가구에서 갖고 있는 장의 폭은 평균적으로 3.4 m로, 장의 깊이를 0.66 m, 높이를 2.0 m로 가정하고 용적을 계산하면 4.5 m<sup>3</sup>가 된다고 하였다. 곽인숙은 이러한 경우 한쪽 벽을 불박이 옷장으로 한다면 이동식 옷장보다 1.58m<sup>3</sup>를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단독주택에 비하여 공간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불박이 수납시설은, 공간활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잡다한 생활용품을 눈에 띄지 않게 정리함으로써 정돈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김일진, 이인희, 건설부 주택국의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 2. 주택의 수납공간 기준(미국의 경우)

1975년 Dechiara와 Koppelman이 펴낸 Manual of Housing Planning and Design Criteria에 의하면, 미국내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최소기준치들

은 건물 및 주택에 관한 법령과 정부기관의 행정적요구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가족의 활동 즉 휴식, 취침, 식사준비, 식사, 그리고 위생공간 및 수납공간에 대한 적정공간은 정부의 행정적 요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모든 주거공간에는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최소기준치 이상의 용적을 갖는 불박이 옷장과 불박이 수납장을 만들어, 개인 또는 각 가구에서 상식적으로 이용되는 품목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FHA)에서는 불박이 수납공간이 실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표 2와 같은 최소기준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이 실내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100%의 용적을 증가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각 주거단위에는 주요출입구 가까이 가족의 겹옷이나 손님의 옷을 수납하기 위한 Guest Closet이 필수적이며, 위치는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곳으로 하고, 옷장의 폭은 겹옷을 걸어 두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inen Closet은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식탁보, 내프킨, 침대시트 등의 침대용품, 수건 등의 보관을 위하여 침실 또는 목욕실 가까이에 두고, 침실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용적을 늘리도록 하였으며, 각 주거단위는 기타의 일상적인 생활용품의 수납을 위하여 별도의 불박이 수납장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두도록 규정하였다.

집합주거용 건물에는 각 세입자를 위한 저장공간이 실외에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유모차, 자전거 등의 바퀴달린 물건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이 필요하고 출입이 용이해야 하며 도난염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하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램프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표 1. 침구와 의복류의 수납에 필요한 1인당 용적

(단위 : m<sup>3</sup>)

연구자	수납 내용	의류 수납용적	침구류 수납용적	총계
김 일 진		1.17~1.43	0.59	1.76~2.02
이 인 희		1.51	0.96	2.47
건설부 주택국		.	.	2.30

또한 가구의 크기에 따라 4.27~12.82m<sup>3</sup>의 수납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었다.

각 침실에는 의류수납을 위하여 한개 이상의 불박이 옷장을 설치하고, 부부침실인 경우 그 폭을 1.52 m 이상으로 하되, 두번째 침실은 0.91 m를 최소폭으로 하고, 각 불박이 수납시설의 깊이는 0.61 m 이상이어야 한다. 불박이 옷장의 옷걸이 막대의 높이는 1.63 m로 하고 옷걸이 막대 위에 설치하는 가장 낮은 선반의 높이는 1.88 m 이하가 되도록 하며 선반은 30 c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불박이 옷장의 바닥은 방바닥과 그 높이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불박이 옷장 깊이의 반이상이 방바닥과 높이가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아파트 가구당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지침은 지면관계상 표 3에 122.68m<sup>2</sup>인 경우만을 예시해 놓았으며, 우리나라 중상류층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용적을 이 지침에 대비시켜 김대년이 산출한 것이 표 3에 예시되어 있다. 미국 아파트의 전형적인 천장높이는 2.44 m인데 반하여 한국 아파트의 천장높이는 2.3 m(안영배)로 산출되어져

있다.

3. 뉴욕의 아파트와 서울의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공간 비교

김대년(1987)은 미국의 아파트와 한국의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공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의 전형적인 중상류층 아파트를 (이인희의 연구에 따라 117.1m<sup>2</sup>이상인 아파트) 단순무작위법으로 10개 선정하고, 이와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뉴욕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를 10개 선정하여, 두 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평면을 같은 축적 1cm=1m로 하여 불박이 수납공간에 중점을 두고 제도하였다. 지면관계상 아파트 평면도의 예시는 생략되었으나, 두 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평면도를 근거로 비교·분석한 불박이 옷장과 불박이 수납장은 표 4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4와 표 5를 요약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불박이 옷장의 수는 뉴욕에 있는 아파트의 41.71%이지만 불박이 옷장 1개당 용적은 오히려 더 컸으며, 불박이 옷장의 총 용적은 38.44%로 심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수납공간의 계획

침실의 수	불박이 수납공간의 용적(m <sup>3</sup> )
0~1	2.83
2	3.97
3	5.10
4	5.67

표 3.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지침

불박이장의 종류	미국 아파트(122.68m <sup>2</sup> )	한국 아파트(117.1m <sup>2</sup> )
	불박이 수납공간의 용적(m <sup>3</sup> )	불박이 수납공간의 용적(m <sup>3</sup> )
Guest Closet	2.72	2.60
Linen Closet	1.81	1.73
General Storage	10.20	9.74
Bedroom Closet 1	2.27	2.16
"    2	1.81	1.73
"    3	1.81	1.73
"    4	1.81	1.73
Total	22.43	21.42

표 4. 불박이 옷장의 비교

내용 \ 도시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뉴욕에 있는 아파트
불박이 옷장의 수	1.46개 ( 41.71%)	3.50개(100.00%)
불박이 옷장 1개당 용적	2.64m <sup>3</sup> (101.54%)	2.60m <sup>3</sup> (100.00%)
불박이 옷장의 총 용적	3.99m <sup>3</sup> ( 38.44%)	10.38m <sup>3</sup> (100.00%)

표 5. 불박이 수납장의 비교

내용 \ 도시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뉴욕에 있는 아파트
불박이 수납장의 수	1.07개 ( 42.29%)	2.53개(100.00%)
불박이 수납장 1개당 용적	4.84m <sup>3</sup> (286.00%)	1.69m <sup>3</sup> (100.00%)
불박이 수납장의 총 용적	5.33m <sup>3</sup> (109.22%)	4.88m <sup>3</sup> (100.00%)

표 6. 불박이 옷장과 불박이 수납장을 모두 합한 비교

내용 \ 도시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뉴욕에 있는 아파트
불박이 수납시설의 총수	2.53개 ( 41.96%)	6.03개(100.00%)
한 시설당의 용적	3.68m <sup>3</sup> (145.45%)	2.53m <sup>3</sup> (100.00%)
불박이 수납시설의 총 용적	9.32m <sup>3</sup> ( 61.03%)	15.27m <sup>3</sup> (100.00%)

또한 불박이 옷장을 제외한 불박이 수납장의 용적을 비교하면 총 용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불박이 수납장 1개당의 용적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시설이 용도에 따라 분화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의 표본 10개 중에서 2개에는 불박이 수납시설이 전혀 없었으며, 5개는 몇개로 나뉘어진 불박이 수납시설 대신에 1개의 수납을 위한 작은방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부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불박이 옷장과 기타 불박이 수납장을 모두 합하여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뉴욕에 있는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시설의 숫자는 4~8개로 평균 6.03개인데 비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시설의 숫자는 1~7개로 평균 2.53개이며, 10개의 아파트 중에서 8개의 아파트가 1~2개의 불박이 시설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불박이 시설의 총 용적을 비교하면 미국 아파트의 61.03%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공간의 용적은 그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용도에 따라 분화되

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나라의 생활습관이나, 지니고 있는 생활용품, 주거생활양식 등이 서로 다를 것이므로, 불박이 수납시설의 필요용적이나 형태는 다르게 마련이지만,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자의 불만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박이 수납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와 아울러 실사가 요망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2가지 유형이 이용되었다. 하나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질문지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불박이 수납공간의 도입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면도와 axonometric method를 이용한 아파트의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선호도를 객관식 척도 기준표(objective criteria

checklist)에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질문지는 불박이 옷장 및 불박이 수납장에 초점을 맞춘 아파트 실내의 공간특성에 관한 문항, 이동식 수납장과 불박이 수납시설의 선호를 밝히기 위한 문항, 우리나라 신부들의 관례처럼 행해지는 혼례장 구입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기존 불박이 수납시설의 보완점등에 관한 문항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객관식 척도 기준표는 서울에 있는 기존 아파트 5개와 이를 각각 개조하여 불박이 수납공간을 보완한 아파트계획을, 평면도와 axonometric method를 이용하여 짝지어 대조시킴으로써 선호를 묻는 5개의 문항과 사회인구학적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 분석

본 연구의 성격상, 조사대상 역시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우리나라 주부들의 불박이 옷장 및 불박이 수납장에 대한 태도 및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된 서울의 중상류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250명의 주부가 그 하나이며, 다른 조사대상은 연구가 진행되는 당시에 미국의 Los Angeles County와 Orange County에 거주하는 한국인 주부로서, 과거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한 모임에 참석할 용의가 있는 41명이었다.

질문지 작성 및 평면도와 axonometric method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1987년 9월 2일과 9월 3일에 Cerritos 한국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가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987년 9월 23일에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를 우송하였고 9월 30일에 질문지 작성의 협조를 요청하는 후속편지를 우송한 결과, 10월 4일까지 51.2%(128명)의 질문지가 회수되어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이상 날짜는 모두 서울 기준이며 서울에서 우송함).

두번째 단계로서 서울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5개 평면도를 선정하여, 선행연구 및 불박이 수납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불박이 수납공간이 배치되

도록 수정하여 평면을 재계획하였다. 기존의 5개의 아파트계획과 새로 연구자가 제안한 5개의 아파트계획을 평면도와 axonometric drawing method로 제도하여, 기존의 것은 A로, 새로 제안된 것은 B로 표시한 후, presentation board 10개에 전시함으로써 조사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미국의 Los Angeles County와 Orange county에 거주하는 한국인 주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57.8%(41명)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줄 의사를 밝혔다. 조사대상을 LA county와 Orange County에서 선정한 이유는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10개의 presentation board를 서울로 운반하여 조사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있으나, 두 나라의 아파트에 모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국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도 흥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87년 10월 10일 11시의 모임에는 참석의사를 밝혔던 41명중 75.6%인 31명이 참가하여 집단 면접형식이 취해졌다. 모임에서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객관적 척도 기준표를 참석자 전원에게 배부한 후, 각 조사대상자들이 벽에 전시된 presentation board를 보고 각자의 checklist에 선호하는 유형을 표시하고 개인의 인구사회적인 질문에 답하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기입하도록 하였다.

서울에서 회수된 질문지 128부는 우리나라 주부의 불박이 옷장 및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태도 및 선호의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미국에서 회수된 31부의 객관식 척도 기준표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불박이 수납시설도입의 가능성 및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 이용되었다. 모든 분석에는 단순한 기초 통계처리인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값 등이 이용되었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서울의 중상류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응답자 128명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31~40

세가 44.5%(57명)로 가장 많았으며, 41~50세가 40.6%(52명)이었다. 평균 가족수는 4.4인으로 밝혀졌으며, 대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92%가 1976년에서 1986년 사이에 건축되었고 평균 면적은 143.5m<sup>2</sup>이었다. 아파트당 평균 침실수는 3.96개이고, 불박이 옷장의 수는 0~5개로 평균수는 1.81개 불박이 수납장의 수는 0~4개로 평균수는 1.56개이었다. 불박이 수납장이 위치한 곳은 거실이 34%, 출입구 23%, 발코니 23%임이 밝혀졌다.

미국 LA County와 Orange County에 거주하는 한국인 주부들의 특징을 분석하면 41.9%(13명)가 미국에서 5~10년간 거주하였고 19.4%(6명)가 10~15년간 거주하였다. 연령분포는 67.7%(21명)가 31~40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2. 불박이 수납공간과 이동식 수납장에 대한 태도 및 선호

서울의 중상류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응답자의 99.2%가 이동식 옷장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가구구입의 주요 이유는 아파트내에 불박이 옷장이 전혀 없거나(47.2%), 충분하지 않기 때문(41.7%)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불박이 수납공간이 부족하며, 이동식 수납장을 구입함으로써 부족한 수납공간을 보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75.0%(96명)는 아파트내의 각 침실마다 불박이 옷장을 원하고 있었으며, 22.7%(29명)는 부부침실을 제외한 각 침실에 불박이 옷장이 설치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부부침실에 불박이 옷장을 원하지 않는 것은 뒤에 논의될 미적인 면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응답자의 92.2%(118명)는 자녀방에 불박이 옷장이 설치되었다더라면 이동식 옷장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불박이 옷장과 불박이 수납장의 설치가 잘 되어 일반화되면; '주거이동시 이동식 수납장을 운반하는데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이 절약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53.1%(68명)가 전적으로 찬성하였으며, 45.3%(58명)가 찬성하였다. '이동식 수납장의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줄일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51.6%(66명)가 전적으로 찬성을, 46.9%(60명)가

찬성을 표시하였고, '이동식 수납장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의 정리정돈이 용이해 질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57.0%(73명)가 전적으로 찬성을, 43.0%(55명)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동식 수납장을 없애고 불박이 옷장과 불박이 수납장을 이용하게 되면 아파트 실내의 미적인 면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찬성과 반대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42.2%(54명)가 찬성을, 42.2%(54명)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으며, 15.6%(20명)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신부들이 결혼할 때 혼례장으로 이동식 옷장 및 기타 수납장을 구입하는 관습이, 불박이 옷장이나 불박이 수납장 설치가 잘 되어있는 경우에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항에는, 응답자의 85.9%(110명)가 그러한 관습은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데 반하여 10.9%(14명)는 불박이 수납공간의 설치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관습이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박이 수납공간이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적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이동식 수납장은 수납이라는 기능적인 목적으로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또는 미적인 목적으로 더 가치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수납공간의 확보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불박이 옷장과 기타 불박이 수납장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동식 수납가구에서 취해지는 미적가치 역시 충족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간활용도가 높고 주거이동시 운반이 필요없는 불박이 수납공간의 장점을 살리면서, 실내의 미적환경을 수준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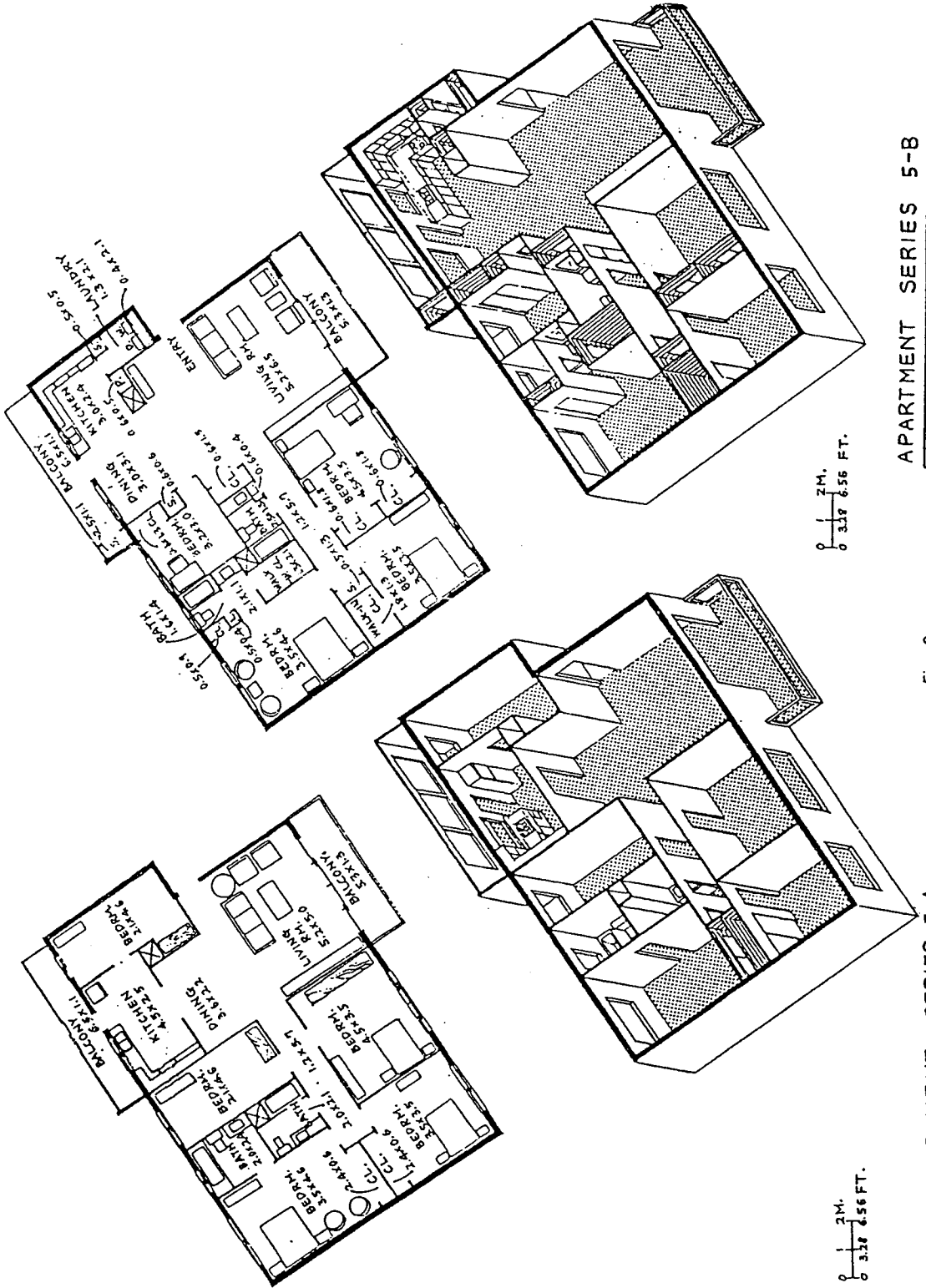
## 3. 분화된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선호 및 의식

서울의 중상류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용도와 장소에 따라 분화된 불박이 수납공간을 원하는지, 또는 많은 품목을 함께 수납하는 적은 수의 불박이 수납공간을 원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 128명 중 95.3%(122명)가 출입구 가까이 가족의 겹옷, 손님 의 옷, 우산 등을 정리할







APARTMENT SERIES 5-B

Fig. 2.

APARTMENT SERIES 5-A

표 7. 아파트 평면계획에 대한 선호도

(백분율, N=31)

Series	1	2	3	4	5
A	6.5	9.7	16.1	9.7	0.0
B	93.6	90.3	83.9	90.3	100.0

Series A : 내부를 변경하지 않은 기존 아파트의 평면계획

Series B : 연구자에 의해 불박이 수납공간이 계획된 아파트의 평면계획

수 있는 불박이 수납장(guest closet)의 설치를 원하였으며, 94.5%(121명)가 부엌 옆의 외부공간에 가끔씩 이용하는 가정기기, 비계절용품, 세제, 큰 용기 등의 수납을 위한 불박이 수납장을 원하였는데, 수납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 중 85.7%가 부엌 밖의 공간이 불박이 수납장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좁다고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공간이 충분하다면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또한 응답자 전원이 침실 이외의 실내 적절한 위치에 일반 생활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불박이 수납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89.1%(114명)가 발코니에도 불박이 수납장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곳에 양탄자, 선풍기 등의 비계절용품과 청소기, 우산책 등의 보관을 원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의 수납공간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코니에 불박이 수납장의 설치를 반대한 10.2%(13명)는 반대 이유로 아파트의 외관을 흉하게 하고(66.7%), 그 곳까지 불박이 수납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25.0%)고 응답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은 장소에 적합한, 용도에 따라 분화된 불박이 수납공간의 설치를 강하게 선호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4. 불박이 수납공간을 보완한 아파트에 대한 수용태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중상류층 아파트에는 불박이 수납공간이 양적으로, 또 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며,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면계획에서 불박이 수납공간의 문제가 거주자의 선호를 무시한 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의 두번째 단계로, 서울에 있는 기존아

파트의 평면구조를 될수록 적게 변경시키면서 불박이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기능적으로는 분화된 불박이 옷장과 불박이 수납장을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평면계획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한국인 주부들의 수용태도(acceptability) 및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변경되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와 연구자가 개조하여 디자인한 아파트의 실내공간을 조사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2cm=1m(1:50)의 축적으로 평면도와 axonometric drawing이 각각 제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5가지 유형의 아파트가 각각 쌍(set)으로 제도된 presentation board를 보고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표시하였다. 5쌍의 아파트 평면계획의 예로서, 지면관계상 apartment series 1-A와 1-B는 Fig. 1에, apartment series 5-A와 5-B는 Fig. 2에 예시하고 다른 것은 생략한다.

조사대상자 31명의 선호도는 표 7에 제시되었다.

기존 아파트내에 불박이 수납공간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으나, 아파트 신축시에 이러한 불박이 옷장과 수납장을 계획한다면 개조하는 비용에 비하여 훨씬 저렴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 가족들의 이동식 수납가구의 구입비용과, 주거이동시에 운반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의 손실, 더 나아가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여건을 지닌 아파트의 공간을 고려한다면 아파트의 실내공간 계획에 있어서의 불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연구는 더욱 계속되어야 하며, 실내 디자이너, 주거학자, 건축가,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업자, 그리고 아파트 건축에 영향력있는 정부당국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서울의 중상류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로부터 회수한 질문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1) 이동식 옷장보다 붙박이 옷장을 선호한다.
- 2) 용도에 따라 분화된 붙박이 수납장을 선호한다.
- 3) 붙박이 옷장과 붙박이 수납장의 설치는, 이동식 수납장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주거이동시에 이동식수납장의 운반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며, 이동식 수납장에 비해 아파트 실내의 정리정돈을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 4) 붙박이 수납공간의 실용적인 장점은 인정하나 미적인 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 5) 붙박이 옷장과 붙박이 수납장이 적절히 설치되면, 결혼할 때 이동식 옷장을 구입하는 우리나라 여자들의 관습이 사라질 것이다.

Los Angeles County와 Orange County에 거주하는 한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통해 아파트의 평면계획을 제시하고, 회수한 checklist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주부들은 붙박이 수납공간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주거생활 공간이 감소되더라도 붙박이 옷장과 붙박이 수납장을 계획한 아파트를 더 선호하며, 용도별로 분화된 붙박이 수납장을 원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될 것을 제언한다.

첫째, 붙박이 수납공간에 대한 우리나라 주부들의 선호 및 의식에 대한 폭넓은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둘째,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수납공간의 내부구조의 설계 및 미적으로 아름다운 실내조성에 도움이 되는 붙박이 수납장의 외부 desig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design은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주로 이용되는 다른 이동식 가구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

셋째, 붙박이 수납장을 계획·설치하는 비용과 붙박이 수납공간이 부족된 경우에 필요한 이동식 가구의 구입 및 유지, 이동시 운반에 드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계산하여 총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자료나 정보가 아파트 건축에 관심이 있고, 능력있는 아파트 건축실무자들에 의해, 거주자를 위한 견지에서 활용되기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경영출판사 : 아파트 총람. 서울 : 경영출판사, 1985
- 2) 경제기획원 통계조사국 : 한국 통계 연감. 서울 : 경제기획원, 1985
- 3) 광인숙 : 아파트 수납공간의 적정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3
- 4) 김대년 : 뉴욕의 아파트와 서울의 아파트의 붙박이 수납공간 비교 연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원 연구논문, 1987
- 5) 김일진 : 주거계획에 있어서의 수납장소에 대한 고찰. 영남대 논문집 제5호, 1971
- 6) 김일진 : 국민주택에 있어서의 수납공간에 대한 고찰. 영남대 논문집 제6호, 1973
- 7) 김종인 : 주생활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16(45) : 7-14, 1972
- 8) 김종인 : 주의식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16(46) : 15-18, 1972
- 9) 안영배 : 최근 건설된 아파트 평면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3(90) : 3-9, 1979
- 10) 윤장섭 : 조선건축(한국건축사 연구 1). 대한건축학회지 17(52) : 51-66, 1973
- 11) 윤장섭 : 조선건축(한국건축사 연구 2). 대한건축학회지 17(53) : 19-34, 1973
- 12) 윤장섭 : 한국건축사. 서울 : 교문사, 1979
- 13) 이인희 : 우리나라 도시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학위논문, 1975
- 14) 조성기 :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8(56) : 25-30,

- 1974
- 15) 주남철 : 이조말부터 1945년까지의 한국의 주택 변천. 대한건축학회지 14(38) : 51-59, 1970
- 16) 대한주택공사 : 한국주거사 : 주택공사 20년사. 서울 : 대한주택공사, 1979
- 17) 대한주택공사 : 주택단지총람 : 1954-1980. 서울 : 대한주택공사, 1981
- 18) 현대공론사 : 한국주택의 발전 : 주택연구보고서. 서울 : 현대공론사, 1986
- 19) Abel HJ & Severud FN : *Apartment houses*. New York :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1967
- 20) Alpern A : *Apartment for the affluent : a historical survey of buildings in New York*.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75
- 21) Beyer GH, Mackesey TW & Montgomery JE : *Houses are for people : a study of home buyer motivations*. Housing Research Center, Cornell University, 1975
- 22) Dechiara J & Koppelman L : *Manual of housing planning and design criteria*.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5
- 23) Frankel V : *The incredible, wonderful, flexible world of built-ins*. New York : Plenum Press, 1978
- 24) Friedman A, Zimiring C & Zube E : *Environmental design evaluation*. New York : Plenum Press, 1978
- 25) Hughes WJ : *Methods of housing analysis*. New Brunswick, NJ : Center for the Urban Policy Research, Rutgers University, 1977
- 26) Nattras K & Morrison BM : *Human needs in housing : an ecological approach*. Washington, DC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7
- 27) Pamero J & Zelnik M : *Human dimension & interior space*. New York : Whitney Library of Design, 1979
- 28) Schoem E : *The closet book*. New York : Harmony Books, 1982
- 29) Shaffer P & Weimer J : *Small space design : remodeling apartments for multiple uses*.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84
- 30) Zey-Ferrel M, Kelley EA & Bertrand AL : *Consumer preferences & selected socioeconomic variables related to physical adequacy of hous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4) : 232-243, 1977